

韓國 古代 金屬冠의 發生과 그 交流에 관한 研究

진 미 희 · 권 영 숙*

동래여자전문대학 의상과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f Occurrence and Alternating Current of a Matal Kwan in Korean Ancient Times

Mee Hee Jin · Young Sook Kw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Dongrae Women's Jurnior Colleg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5. 10. 20 접수)

Abstract

The system and symbolizing ideologic meanings of the metallic Kwon in period of the Three-Kingdoms were comsidered by comparing to their cultural path and structal styles throughout the tree and the deer worship ide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ly, the beginning of the Korean, mostly northern style was originated from metal tools of the Bronze age in BC 6c~7c. The manufature of the metallic adornment brought the prevailing use of metallic objects of craftwork after the supply of ironmongery.

Secondly,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etallic Kwan in the korean Peninsula were influenced from the northern chinese tribes, Momg Go, Hung No, and Sien-pi who were transmitted from the scythian of the southern Russia having a preference for gold.

Thirdly, the metallic Kwon of the Kogurgo and the Baekje era was ideologically based on the art of Buddism of the pattern of blazing flame, the carved pattern of flower of herb, and the honey. sukle which were tramsitted to china through the silk noad.

Fourthly, the metallic Kwam of the silla era consisted of the tree and the antler types in closely related to the tree and the deer ideology which were based on the background of shamanism. It should be raid that the metallic Kwan of the silla esa are connected to the type of northern ancient Kwan.

Lasthy, the metallic Kwan-Mo of the Kaja esa was mostly original type of flower of herb even if kome of these are similiar to the tree adornment type of silla. This type of flower of herb in based on the scythian type with a statue im silveer founded at Alexandnopol in the southern russia.

I. 서 론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류가 자기 신체에 장신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였다고 하며 당시의 장신구는 骨, 角制의 간단한 머리꽂이라든지 顎飾 등이었으나 신석기시대에 이르러서는 신체의 각 부분을 장식하는 여러가지 장신구가 발달하였다. 장신구가 발달한 것은 자신의 몸의 치장 및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욕구에서 뿐만 아니라 다분히 주속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고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구석기시대의 자료는 분명하지 않으나 신석기시대 이후 풀, 각, 폐각, 옥류 등으로 제작된 각종 장신구가 사용되었으며 신석기시대 이후 본격적인 북방계 문화의 유입이 시작되는 청동기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구체화, 다양화해졌다¹⁾.

고대 국가의 형성, 발전과 더불어 장신구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표상으로서 상징물로 더욱 강조되기로 하며 계층화된 사회에서의 계급이나 지위, 역할의 표시, 특별한 사상의 표출수단으로도 쓰이면서 경제상, 기술면 등 사회와 문화의 전반적인 양상이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장신구가 제작되기에 이르렀고 특히 장신구 중심분의 상정 및 사회적인 지위의 한 수단으로 신체의 보호 및 장식의 기능과 함께 다른 어느 장신구보다도 더욱 중요시 여겼으며 동시에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것은 두 것이다.

고대 우리관모는 折風, 蘇骨, 幀, 鳥羽冠, 金과 銀花의 立飾冠 등으로 된 冠과 巾의 형상이며 남부지방에서는 고분에서 고도의 미적감각이 정식된 금관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들 관모는 弁狀의 관모를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수식이 가해지면서 발달한 것이다. 특히 조우식은 일차적인 선행연구로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우리나라 鳥羽拂冠과 思想的 背景”²⁾에서 조류승배사상과 陰陽五行思想의 관념이 조우식의 생활습속으로 정착시켰고 금속제 조우식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나라 금속관은 변상의 내관과 대륜에 입식을 가한 외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종래의 금속관의 연구는 금속관의 내관, 외관의 형태론적 고찰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금속관 중에서 외관의 형상을 삼국주변국가와의 교류 및 출토유물을 통한 형제의

계통을 밝혀 우리나라의 금관문화의 사적정립을 세우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출토유물의 실증적 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금속제 관모에 영향을 준 고대 삼국문화와 주변국간의 교류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금속관의 문화경로 및 주변국가와의 금속관의 구조, 양식을 비교분석하여 그 계통을 밝히고 이를 금속관모가지니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연구의 자료는 사진자료 및 한국의 출토유물 자료를 사용한다.

II. 삼국문화와 주변제국과의 교류

1. 동아시아와의 교류

〈漢書〉地理志나 〈三國志〉, 〈魏漢書〉東夷傳에 의하면 “無門戶之閉”, 나 “無城廓”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³⁾, 고대의 한국인은 대체로 외국에 대해 개방적이며 외국문화에 대하여 수용적이었으며 지리적, 역사적 환경 관계로, 일찍부터 북으로 만주지방을 거쳐 대륙문화와 접촉하고, 삼면이 바다여서 해상으로 외부로 진출할 수 있어 비교적 쉽게 문물이 교류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⁴⁾.

따라서 삼국문화와 교류를 가졌던 중국, 일본 실크로드 주변국가와의 문화 교류관계를 고찰 하고자 한다.

1) 중국과의 교류관계

중국문화는 東亞에 있어서 유일한 中心문화였다는 사실은 그 주변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그 자체 문화를 주변에 파급시켰을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용한 外來文化, 즉 불교, 불교미술을 그 주변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삼국문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불교문화의 수용이다. 불교는 인도의 종교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중국불교이고 한국인들은 사상적으로 뒤흔들고, 정신문화 및 物質文化 즉 생활환경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삼국시대의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국가적 공적 외교관계와, 사적 관계가 병존하였고, 공적 관계에는 조공관계와 일반 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반도가 한문화에 젖기 시작한 것

은 낙랑시대 부터이며 문현에 정착한 것은 漢代 부터이다⁹⁾. 조공을 내포한 국가간의 공적 외교 교섭은 삼국의 고대국가가 완성되어 남북조 제국과 내용하므로 구체화되었다.

한·중과의 교섭은 육로가 主이며 해상교통의 경우 육지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극히 균형한 연안수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해상교통의 시작의 시기는 遷東, 寧邊, 康津 등에서 출토되는 명도전으로 보아 전국시대부터 해상왕래가 있었다고 추측한다.

삼국中 국가 형성이 가장 빠른 고구려가 제일 먼저 중국문화를 수용하였으며 동진에서 수에 이르는 시기의 使行의 빈도는 고구려가 가장 빈번하였다.

고구려가 최초로 공식 사행을 중국에 파견하여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은 대무신왕 15년이며 대종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천왕의 낙랑군등 한사군 추출한 뒤이며⁷⁾이는 삼국정립이 본격화됨을 의미하며 고국양왕, 광개토왕代의 北燕과의 투쟁을 中心으로 하던 고구려의 대중국관계가 장수왕代에 들어오면서 우호외교 관계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고구려는 폭넓은 중국왕조와의 외교관계를 맺어 동북아시아에 군림하고 문물제도를 도입 정비하여 국력배양에 전념한 결과 한반도에 있어서 세력기반을 공고히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외교관계가 복합되어 전개되었다.

백제는 국가 성립시기부터 한사군과의 각축을 通하여 정장하였고, 그중심세력이 부여 고구려 제통의 유이민이고 근초고왕 30년 중국 남조를 통한 세력된 귀족문화를 수용하였고 고구려, 신라보다 해상활동이 활발하여 해로를 통한 교역 및 문화교류가 많았고, 일찍이 중국과 교섭하여 불교 및 남조 문화를 흡수하여 불교예술이 성장, 발달하여 고도의 문화능력을 전개시켰고, 일본에 전파시켰다⁸⁾. 따라서 백제는 문화적인 면에서는 고구려보다 앞선다⁹⁾.

신라는 여러차례에 걸쳐 외래문화의 요소가 밀려와 신라문화를 구성했으며, 이렇게 유입된 세력에 의해 古 신라문화를 정착시켰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동남에 편재한 지리적인 이유로 뒤늦게 대물왕代부터 조공외교의 대종교섭이 시작되었고, 지증왕, 법흥왕代 남북 양조와의 교섭을 통한 불교수용과, 한화정책 진흥왕代 이후 중국과의 册奉관계 남북양조의 세력을 이용한 양면외교를 이루었다.

그러나 고구려 백제의 영향속에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마약했으나, 6C중반 진흥왕 한강진출이후 당파의 조공무역, 공무역, 사무역, 밀무역, 관무역등의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졌다¹⁰⁾.

신라문화는 삼국시대 신라문화 및 반도를 통일한 통일 신라문화를 말하며 지리적으로 균형한 백제문화요소, 정치상 균형한 고구려 문화요소, 서아시아 방면의 문화를 원류로 하는 북방계 문화요소등 다채로운 문화를 도입하여 발전시켰다¹¹⁾.

2) 일본과의 교류관계

삼국은 지리적 또는 역사적으로 일찍부터 대륙문화와 접촉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일본에 전파시켰다.

따라서 고대의 한국문화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古史라고 할 古書記, 일본서기에는 주로 백제로 부터 학술, 종교, 예술가, 기술자들이 많이 전너가 문화의 불모지였던 일본에 찬란한 문화를 열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일본과 문화적 교류를 많이 행하던 백제는 일본과 서로 우호관계를 가졌고 정치적 문화적 교섭은 근초고왕(BC346~375) 때부터 시작되었다¹²⁾.

즉, 아직기, 왕인등을 보내 한학을 전하고 재봉녀, 직공, 도공들을 보내 일본공예에 큰진보 발달을 가져왔고, 유교, 불교 및 각종 미술공예, 음악등 다양한 분야가 일본에 전너가 정신문명, 물질문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고구려는 반도북방에 위치하였던 만큼, 백제와 같이 밀접한 관계는 없었으나, 간간히 使船의 왕래가 있었고, 고구려 멸망후 고구려인의 집단적 아류가 있어, 간접, 직접으로 일본문화에 기여하였다.

신라는 삼국시대를 통하여 일본과의 적대관계였으며 일본에 대한 문화적 교섭이 없었고, 신라의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친것은 통일기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일본고분의出土된 유물들 대부분이 신라문화 영향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는 가야문화가 전너간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고 가야와 일본과의 관계는 日本書記에 의하면 4C후반에 이미 교섭이 있었으며 隋生시대부터 古墳시대 前期까지 일본열도의 지배세력은 가야지 방에서 이주해 간 이주민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전기 가야인 금관국은 왕족묘역으로 생각되는 김해 대성동 유적발굴조사에도 드러냈듯이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 등과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富의

축적을 이루는 동시에 인근 각국의 문화를 섭취하므로 서 강력한 군사 집단으로 성장하기도 했으며 함안의 阿羅伽倻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2. 실크로드 주변국가와의 교류관계

실크로드는 태고이래 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를 지나 유럽 및 북아프리카를 잇는 동서 교통로의 총칭으로¹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동서교역의 통상로는 세 갈래의 경로가 있다. 즉, 스텝로, 오아시스로, 남해로이다¹⁵⁾.

실크로드 세간선中 육로는 스텝로와 오아시스로로 나누며 스텝로는 유목 기마민족이 자유롭게 동서로 왕래한 길이며 “金의길”로서 BC7C경 스키타이인들이 흑해로부터 우랄산맥을 넘어 알타이지방으로, 동방무역을 시작 하여 멀리 아시아지역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길을 통하여 BC8C 남러시아에서 흥기한 스키타이 문화와 봉고고원 일대를 주름잡는 흥노 기마민족문화가 화북을 넘어 중국 동부지방을 거쳐 한반도, 일본에 까지 전파하기도 했다¹⁶⁾. 이길이 어떻게 한반도로 이어졌는가는 미상이나, 한국 고대문화와는 진밀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BC8C, 유라시아는 새로 확산하는 철기문화와 함께 스텝(초원)지대의 유목민족들이 바쁘게 움직이던 격동기이며 스키타이인들은 이러한 철제무기, 철제공구에 의한 확산과 민족이동의 물결을 타고, 중앙아시아에서 흑해북안으로 진출한 기마민족으로, 스키타이 황금제동물양식을 발명하여 시베리아 초원지대 전역으로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황금제 스키타이계 동물묘양이 옛부터 유라시아 일대에 분포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스키타이 교역로가 스텝지대를 가로 지르고 있었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철기등 북방기마민족 문화의 유물들이 스텝로를 통해 전입되었다고 추정하나 언제부터 스키타이계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BC700~BC600년경부터 러시아의 예니세이강 상류 미누신스크 지방에서 내몽고 綏遠지방에 걸친 기마 청동기인들의 남향 이동이라는 큰물결이 한반도에까지 여파를 던지게되어 우리나라에도 마누신스키-스키타이-綏遠문화가 뒤섞인 복합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특히, 우리나라 신라 고분에서 나타나는 構石木櫛墳의 형식은 알타이 지방의 피지리크凍土지대에 분

포된 고분의 구조와 양식에 연결되고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¹⁸⁾ 북방적인 요소이며¹⁹⁾ 삼국시대 고분의 부장품에서 황금제품이 다수 출토되고 특히 금관장식, 동물의장등의 금제유물은 황금을 좋아했던 스키타이인들의 문화와는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북방 Scytho-siberia 계 문화요소가 삼국문화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스텝로를 통한 우리 고대문화 교류의 진밀함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고대 삼국문화와 실크로드와의 접촉을 문헌, 벽화 및 유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구려는 일찌기 장수왕 19년(427)에 丸都에서 평양으로 천도한후, 북방수비를 위해 後魏와 우호관계 유지하면서 西城과 교통하기 시작했으며 직접적 접촉과 내왕을 시사해주는 최초의 문헌기록은 隋書에 의하면 고구려는 서기 436년, 요서의 부연황제 빙씨를 멸하고 후위와 수교하여 처음으로 서역과 통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²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양왕 18년 “고구려 사신이 오르도스 지방에 있었던 돌궐추장 啓民可汗의 帳막으로 파견되어 隋에 대항하려 했던 것이 그곳에 친방했던 隋陽帝에게 감지되어 경고를 받았으며, 수의세력 견제키위해 돌궐에 사신을 밀파하였다”²¹⁾라고하여 고구려의 대 서역관계는 일찍부터 유지되었던 것 같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640년 당의 유학생으로 고구려, 백제, 고창, 토번등도 자체를 보내어 입학케 하였다²²⁾. 라고하니 서역계 민족과의 접촉을 시사해 준다고 한다. 신라와 서역과의 교류는 간접무역이 주류를 이루어 양주, 명주 등지에 <신라방><신라소>를 두어, 상호무역을 행했고, 당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신라는 당의 수도이며 서역문화의 집산지였던 장안에 조공사, 구법승, 유학생들을 파견하여 이를 내왕을 통해 적접, 간접적으로 아랍, 이슬람제국을 비롯한 서역문화 귀족상승의 기호품, 사치품을 반입하여 수용 하였다²³⁾. 한국과 실크로드를 이어주는 육로中 오아시스로는 기본로이며 한민족문화의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인 불교가 이길을 따라 전개되었으며 한반도에서 서역문화가 주로 장안을 비롯해 이길과 직결되었다고 한다²⁴⁾. 이길은 농경문화가 전파될 수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하고 혼히 ‘銀의 道’라고 한다. 페르시아, 사산조 등의 銀 본위제 나라들이며 중국은 스텝로를 통한 황금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불교문화가 오아시스로

를 통해 인도로 부터 중국으로 전해졌다고 한다²⁵⁾. 한편, 실코로드와의 접촉을 벽화를 통해 살펴보면 아프라시아 궁성벽화의 사절단에서 고대한국人이라고 추정하는 두사람의 人物이 주목 된다고 한다²⁶⁾. 이 벽화는 소련 우르베츠 공화국 사마르칸드市에 있는 아프라시아 도성지에 남아 있으며 연대는 7C는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벽화에 나오는 한국人을 고구려인으로 보는 說, 신라인으로 보는 說이 있다. 궁전벽화를 직접 조사한 알리바움은 고구려인으로 보고, 고구려의 古墳 벽화로써 거기에 그려져 있는 인물의 머리에 있는 2개의 羽根을 끊은 모자를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서 二人이 쓴 모자와 비교하고 있다²⁷⁾. 신라인으로 보는 說에 있어서 신라는 7C경 스텝루트로 중앙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 각지역과 우호관계를 맺고, 정치적인 사절단과 문화적 기술자와 경제적인 통상人으로 왕래 하였을 것이다. 이 통로로는 유라시아대륙, 서방문화권에 접촉하고, 이를 문화를 받아들여 신라의 독자적인 이질문화를 형성 하였다고 한다²⁸⁾. 따라서 아프라시아 궁성의 조우를 끊은 2인은 고구려 인으로 보고, 북벽의 배에 탄 인물도는 신라인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²⁹⁾ [도 1]. 아프라시아 궁전벽화 한국 사절도가 갖는 의외는 한반도와 서역간에 사신파견으로 대표되는 공식적관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III. 한국 고대 금속문화의 발생 및 금속관의 문화경로

1. 한국 고대 금속문화의 발생

모든 문화는-특히 고대에 있어서의-他文化와의 접

촉, 즉 고유의 전통에다 다른 文化의 전파와 이식 (acculturation)을 통해서 새 요소를 가미하고 스스로 풍부해 지면서 형성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한민족의 순수한 문화란 있을 수 없고 한문화의 원류를 살핀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³⁰⁾.

따라서, 우리나라 금속관의 원류를 밝혀내려면 고대 금속문화의 전반에 걸친 고찰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은 시베리아 만몽 일대에 사는 북방 민족권에 속하며 지리적으로 북방 문화권이 남단이 되어 문화면에서 독특한 지역형성을 이루었고, 우리와 혈통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B.C4000년경에서 시작되는 신석기시대 주민부터이며 그 문화는 시베리아에서 퍼져 내려온 것이라한다³¹⁾. 금속문화는 史前시대에 서아시아로 부터 동아시아에 전해된 것으로 생각하며³²⁾ 특히 청동문화의 기원은 메소포타미아 鑄造기술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하며, 동방에는 약 1000년 걸려 인도 북부 인더스 문명권에 이르고, 그 위에 800년 남짓 걸려 중국 북부에 그 기술이 전해졌다고 한다³³⁾. 殷周의 銅器은 부분적으로 남시베리아 카라스크문화와 유사하며 은과 카라스크 江의 중간에 있는 綏遠 지방에서는 양지역보다, 비교적 서아시아 청동기문화를 그대로 전한 綏遠 청동기문화가 번영하였다고 한다. 미누신스크 지방과 알타이지방에 금속이 많이 산출하여 시베리아 금속문화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³⁴⁾.

따라서, 남시베리아에서는 상림 초원시대에서 목축을 주로하고, 농경을 富로하는 생산경제를 기반으로



[도 1]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 한국사절도 (출처: 東ろジロの古代文化)

하여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여 몽고 만주에 전파시켰으며³⁵⁾, 내동고에 있어서 오르도스 지방과 만주의 요녕 지방이 청동기문화 중심이 되었고, 특히 미누신스크 청동기문화는 화북의 紹遠(오르도스) 청동기문화에 영향을 주어 스키타이 요소가 섞인 풍부한 청동기들이 나와 유목민 문화로서 기동력을 이용해 남쪽으로 퍼져 나가 북방계 초원 청동문화를 발생시켰다. 중국 장성 지대인 오르도스지방에는 BC2~3C 청동문화가 가장 번성하였고, BC4~3C경에는 철기 뿐만아니라 황금장식이 크게 유행 되었다고 한다³⁶⁾.

한편, 농경문화가 만주, 한반도에 발달함에 따라 정착 생활이 이루어져 작은 국가들이 형성되어 금속문화가 이루어져, 그 초기에는 무기와 장식품이 主가되어 국가의 지배계급의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금속문화의 시작은 BC6~7C로서 청동기시대의 금속기에서 비롯 되었으며³⁷⁾, 청동 장식품은 綏遠 청동기나, 남시베리아 카라스크 문화에서 자주 보여지며³⁸⁾ 카라스크 문화는 예니세이江상류, 알타이지방, 바이칼 지방에서 발달된 문화로서 특징적인 묘제인 석관묘가 이를 청동기 문화에 따라 몽고, 만주, 한반도에 널리 분포되었다고한다. 초기 철기시대(BC 4C~0 C)에는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고 BC108년 낙랑군 설치를 계기로 철기가 한반도 지역에 확산 보급되어 철기 기술이 유입되어 중국 묘제등 고분벽화가 그대로 한반도로 유입되었고, 철기시대 동검의 손잡이 끝장식의 쌍조장식은 남시베리아 알타이 일대의 馬貝 와 중국 북부 오르도스 단검에서 많이 나타나고, 오르도스 단검은 우리나라 만부지방에서 출토된 바도 있다³⁹⁾.

따라서, 한반도의 금속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시베리아 지역이 차지하는 의의는 매우크며, 細形銅劍 使用期를 전후하여 시베리아계, 오르도스계, 중국계의 금속문화가 복잡하게 얹혀져 있으나⁴⁰⁾ 전반적으로 중국요소보다 북방계 요소가 압도적이다⁴¹⁾. 우리나라 금속제 장신구제작이 어는 정도 본격화 된 것은 철기보급이후인 BC 1C이며 무기, 농기구의 활발한 제작 보급은 富의 축적, 사회발전을 초래하고 사회내에 계급문화 및 외지와의 교역을 촉진시켜 사회전반에 크나큰 변화를 초래하였다⁴²⁾. 이러한 금속문화는 처음에는 武器, 利器, 儀器의 시작이었으며 차츰 장신구 및 생활용구로서 금관, 관식,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동

경, 침통, 바늘 등 금속공예품으로서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금속제품에 쓰이는 用村는 고대사회에서도 다양하고 특히 금은 아름다운 광택으로 인해 사람눈에 띄게 되었고 가공하기가 쉬워 즐겨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며 삼국시대 장신구 제작에 금과 같은 귀금속을 많이 사용하였다.

2. 금속관의 문화경로

인류가 머리에 금관을 쓴 것은 고구려의 銀幘보다 훨씬 오래전일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금관을 사용하였는지는 분명치는 않으나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기록인 삼국지 부여전에 “以金銀節帽”⁴³⁾라 하고 위서 “黃金出自夫餘”⁴⁴⁾라고 하여 금 은으로 화려한 관모를 장식하였다고 생각하며 위의 기록은 중국의 진수가 쓴 것으로 적어도 B.C 3C이전에 부여에서 금 은으로 관모를 수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⁵⁾. 부여에서 황금을 다루는 기술 및 황금제 장식이 대단히 우수하였고 더욱 분명한 것은 고구려 백제는 부여에서 出自하였다고 하는 고대사서나 금석문의 기록이 있다고 한다⁴⁶⁾.

고대사회에서는 관모가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고 삼국시대 금관만큼 독창적이고 훌륭한 예술은 없을 것이며 그 중 신라금관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세계에서 우수한 왕관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속문화의 기원이 된 스키토-시베리아의 북방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고대 금속관모에 영향을 준 황금문화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 유목민족은 대단히 금을 좋아했으며 금에 대한 애착은 그것이 재질로서 영구불멸일뿐 아니라 그 광채는 암흑과 불안을 물아내는 광명과 상통하며 그의 소유가 곧 재부와 힘의 상징이 될 수 있었겠지만 특히 살림살이를 수레에싣고 이동하는 유목민족에게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재화였던 것이다. 이러한 황금문화는 넓게 퍼져 우크라이나 지방과 알타이산맥, 시베리아지역에서는 멋진 황금미술품이 여러개 출토되었다⁴⁷⁾.

알타이산맥은 옛부터 황금의 산지로 유명했으며 그곳에는 머리가 鷲이고 몸체가 사자의 형을 한 그리폰이라는 괴수가 황금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으며 그곳에서 산출한 황금이 그리스로 운반되고 훌륭한 장신구 등으로 발전되어졌다고 한다⁴⁸⁾.

황금제품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집트, 베소포타미아, 이란에서 나오고 있지만 북방 스텝루트에 관계있

는 것은 그리스 이란의 황금제품이다. 흑해북연 우크라이나 지방의 스키타이묘에서 많은 황금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스키타이민족이 금을 좋아해서 그들에 의해 동방으로 넓혀진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황금으로 만든 人眠을 비롯한 많은 고대의 황금장식품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카자스공화국 이식고분에서 황금인간이 출토되었고 동물소재의 황금제 사슴 형태의 장식품들이 나오기도 했다⁴⁹⁾.

이러한 황금문화는 더욱 더 동방으로 전하여졌지만 중국자체는 황금에 대해 강하게 관심을 나타내지 않아서 황금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등에는 황금문화가 전하여져 발달하였다. 따라서 그 성격, 원류는 잘 알수 없으나 우리의 금관문화는 BC7 C-BC 4C를 통해 금을 좋아하는 기마민족들에 의해서 한반도까지 전파되어진 것임은 분명하다.

IV. 금속관모의 실증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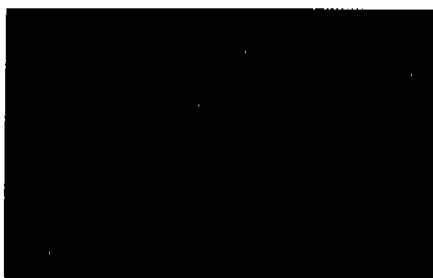
1. 실크로드 주변국가의 금속관

실크로드 주변국가들의 금속관을 사용한 예를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아프카니스탄의 시바르간에서 황금총이 발굴조사되어 황금제 보관이 출토(BC 1C-AD1C)⁵⁰⁾

시바르간 출토 황금유보는 중앙아시아 고대문화를 아는데 중요한 가치를 두며 아프카니스탄 시바르간은 동서문화교류의 요지이며 즉 실크로드의 중요한 위치에 해당한다.

아프카니스탄의 틸리야 테페 황금보관은 세형 대륜에 5개의 수지형 입식을 세우고 대륜과 입식에는 영락(보요)을 장식하였다[도 2]. 신라의 수지형 입식금관



[도 2] 아프카니스탄 틸리야 테페금관
(출자 : 한국고대 금속 공예연구 : 이난영)



[도 3] 남러시아의 사르마티아 금제관
(출자 : 김원룡, 신라금관의 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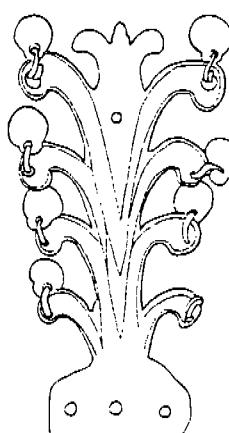
과 나주출토의 백제의 수지형 입식 금동관 등과 동일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같이 수목신앙에 따르는 샤만관의 내용을 지닌 것으로 추정한다.

2) 남러시아의 노보체르카스크에서 나온 사르마티아 금제관(BC 1C)⁵¹⁾

B.C 1C 사르마트족 고분에서 나온 樹鹿장식의 금관으로 특징은 수목 2지와 사슴 3두각을 입화형으로 장식하였고 대륜 하부에 영락 수식까지 결들여 신라금관에서 그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다[도 3].

3) 남러시아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토된 은제관식(BC 3C)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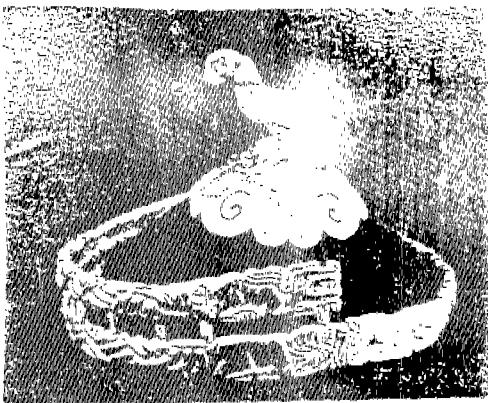
알렉산드리아 부근 고분에서 나온 것이며 초화형 입식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도 4].



[도 4] 남러시아의 알렉산드리아의 銀制관식
(출자 : 한국 미술사연구, 김원룡 p. 627)

4) 내몽고 항면기 아노자등 묘에서 출토된 금관(BC 3C~AD1C)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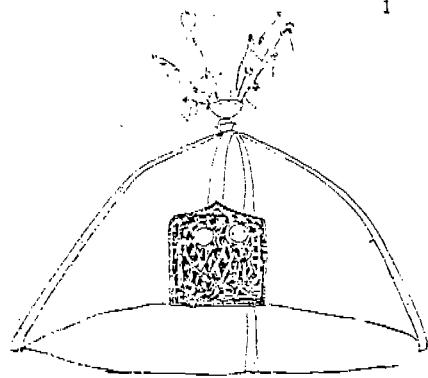
내몽고 자치구 항면기 아노자등묘에서 출토된 황금제품이 나오고 그 속에서 주목되어지는 것은 금관의 형상이다. 금관은 두부분의 재료를 포함한다. 하나는 반구면체의 頂節으로 위에서 있는 새와 “늑대와 양을 무는” 형상이 있다. 이는 스키타이 동물 표현방법이 여기에도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머리 주위 동근띠에 圓環形이 사용되었고 두단의 반원형의 金條로 이루어져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도 5]. 북방민족 초기에 금관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실물이며 이것이 한 시기에 있었던 금관형태를 반드시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의 관식에 대한 형상적인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도 5] 내몽고 杭錦旗阿魯紫登諾의 금관

5) 북방 慕容선비들의 금제 步搖冠(AD 3C말~AD 5C초)⁵⁴⁾ [도 6]

북방의 모용선비등에서는 금제의 보요관이 유행하였는데 이 관은 새나 짐승 등 동물장식이 꼭대기 장식의 중요위치에서 물러나고 步搖頂花가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산보양의 이마 장식이 나타나 새기고 찰라 꽃을 만들어 이마장식표면에 보요앞 조작을 달았다고 한다. 금관이 북방민족 고유의 것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 주요장식을 동물에서 보여로 바꾼 것은 커다란 변화였다. 고구려 및 일본의 고고학 발견에 근거하면 금관이나 지금 남아있는 이마장식 윗부분은 보요장식과 步搖葉片으로 본다고 한다. 금제보요관식의 시기는 3C말에서 5C초로 보아야하고 이 관식은 직접 머리에



[도 6] 慕容鮮卑의 金制步搖冠
(출처: 鮮卑族의步搖冠節孫國平)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형태에 따라 관의 각 부위에 째매어 다는 것으로 관의 이마 부위에 다는 것과 관의 꼭대기에 다는 것이 있다. 이는 선비의 수공업이 발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 은 제련과 조각기술 또한 높은 수준에 올랐다 것을 증명한다.

2. 고구려 금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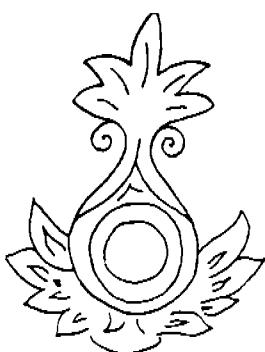
고구려 관모에 금,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음을 고대 중국사서인 「北史」 및 「周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모의 기록과는 달리 실제로 유존되는 금속관은 몇점이 되지 않아 고구려의 금속관의 원류, 계통, 발전과정 등을 기술하기란 매우 어렵다. 고구려 금속관의 관과 관식을 의 실제 유물을 살펴보면<표 1>과 같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고구려 에서는 금, 금동 등을 이용한 금속관모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조 양식적인 원류는 알수없지만 투각한 草花文, 忍冬唐草文 등의 형식은 식물의 초화를 본 딴 것으로 식물문은 희랍, 로마시대에 성행되었고, 특히 인동당초문은 페르시아 아프카니스탄 시리아 등을 거쳐 중국에 들어와 불교미술과 조화를 이루었고 六朝시대이래 그 예를 볼 수 있다고 한다⁵⁵⁾. [도 7]은 六朝시대 중국 河南城 磁縣의 古墓 玄室 石門 上部 檻形石의 표면과 기둥에 인동문을 도안화 한 것이며 [도 8]은 六朝시대 漢式 鏡外邊 輸帶文에 새겨진 인동문양이며 [도 9]는 고구려 遇賢里中墓壁 忍冬文으로 금동관의 火炎形 입화식과도 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⁵⁶⁾. 따라서 이러한 장식적인 문양은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불교미술의 토착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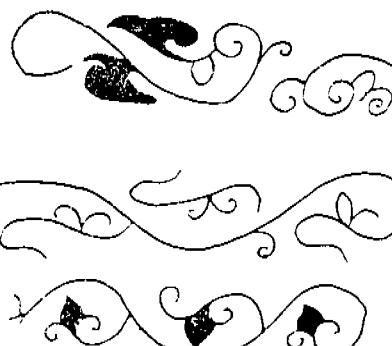
<표 1> 고구려 금속관의 관, 관식

금 속 관	관 대	입 식
평양부근 금동관 [도 10]	똑이 좁은 금동관대에 투각초화문 새김	금동입식을 좌우에 각각 하나씩 세우고 상부가 안으로 굽은 형태를 이룸
평양청암동 토성출토금동관 [도 11]	관대의 상단에 인동을 투자 하단에 연주문 돌리고 상하단 중간기에는 등간격으로 花形 장식 7개 관대 좌우 2개의 현수식	투각 화염분 금동입식 9개 세움

관 식	특 징
금동투각관형식구	심엽형을 세로로 잘라 뉘인 형태이며 총앙에 같은 간격으로 구슬박은 2중원문속에 태양상 정하는 삼족오 주위에 화염을 표출
대동군화성리 횡혈식 성곽분출토의 금동관 전입식	형태가 반원형 두께 0.03cm얇은 순동관에 길이 34.7cm 높이 9.4cm바닥에 원형, 반월형, 화초형 등 투조문양 타출
금동조우형 장식	전 후면 모두 도금하여 좌우 중간식 3개 有 1917년 1월 29일 烏岡王吉로부터 구입: 출토자, 출토상황 전혀 알 수 없음 중간식의 우모부는 똑이 넓고 긴 청도관의 중앙부를 5전후로 남겨놓고 가장자리를 0.45 ~0.6쪽으로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자른뒤 회화단으로부터 한칸씩 전너서 가닥을 끊어내고 남은 가닥은 2회정도 오른쪽으로 비틀어 꽂았다. -새깃털의 형상화 식판내부에 삼각문, 인동문 장식문양 있음 좌식, 우식: 전체적으로 중간식과 동일, 깃털형상 우모부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음.
금동투각산형장식	상부 세곳이 尖 部의 돌기를 가지며 각 돌기는 서로 예각 전체적 鋸齒形으로 연결 산자형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가는 가장자리부분에 삼각문, 사각문 등이 배치, 내부공간에 인동문 배치
길립성집안현 출토금동제관식	조우형입식인 좌, 우, 중간부로 이루어짐. 좌우조의부는 신라, 가야 조익형장식과 동일하며 금동보요를 촘촘히 매어 달고 중지의 양 측과 끝을 가늘게 오려서 수술이 달린 듯하며 그 안투공장식, 보요를 정연하게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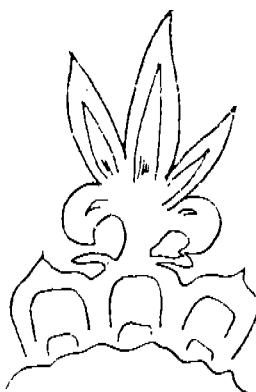


[도 7] 古墳玄室石門櫛形 石彫忍冬文(六朝時代)



[도 8] 漢式鏡緣節忍冬文(六朝時代)

(출처 : 한국장신구 미술연구, 황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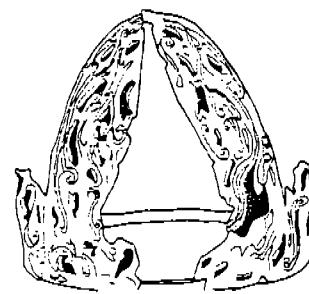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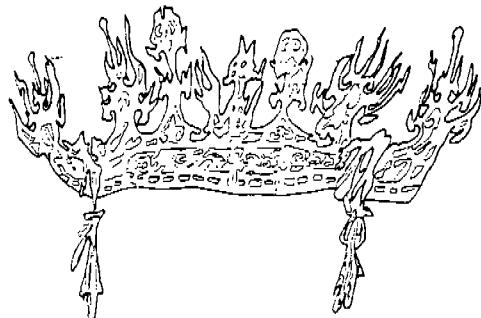
[도 9] 遇賢里中麥壁忍冬文(고구려 시대)

그 사상적 배경을 두고 있으며 5세기경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되면서 서역적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백제의 금속관

실제로 유존되고 있는 백제의 금속관모중 완전한 금동관으로는 나주 금동관 한개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유입, 발전, 전파 과정을 알기는 어렵다.

출토된 관과 관식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이上面으로 살펴 본 결과 백제의 금속관모의 선단 보주형인 초화형 입식 형태는 가야의 고령부근 고분의 금관의 양식과 상통하는 의장이며 [도 25]이는 남북시아의 알렉산드로폴에서 발견된 은제 초화형 관식과 관련 지

[도 10] 평양부근 금동관
(출처: 고분출토 부장품연구, 윤세영)[도 11] 평양 청암동 토성 금동관
(고분출토 부장문연구, 윤세영, p. 11)

을 수 있다. [도 3] 또 무열염릉 왕과 왕비의 관식에서 나타난 인동당초문 및 화염형 장식은 고구려 금속관모와 함께 불교미술의 양식이 첨가되었다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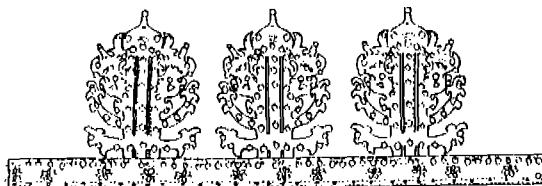
<표 2> 백제의 금속관, 관식

금 속 관	관 대	입 식
나루심남면	금동박판을 구부려선 만든 세로 19cm 가로	정면과 좌우측면에 높이 23.5cm 폭 14cm의
신촌리 제9호분을 관	16.5 타원형으로 상하 가장 자리에 타출점선	투각초화형 입식을 세옹입식의 끝은 보주형
출토금동관	분과 중앙부분에 8개의 연화문배치 원형 소	화형의 小枝가 좌우 3개로 뻗음
[도 12]	보요 매담	

관 식	특 징
무령왕릉출토 왕관식 [도 13]	금관을 오려 만개의 화형을 만들고 중심좌우에는 인동당초문 배치, 원형 소보요 매담 가운데 길게 뻗어 올라간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3~4줄기의 인동당초줄기가 마치 불꽃처럼 뻗어올라간 형상
왕비관식 [도 14]	순금박판으로 투각, 인동당초문 좌우상칭되게 배치 인동당초문이 있고 왕관식과 마찬가지로 불꽃무늬 연상



[도 12-1]



[도 12-2] 마주십남면 신촌리 을관 금동관
(출처: 고분출토 부장품 연구, 윤체영)

있다.

4. 신라의 금속관

신라는 금과 철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금제품과 철제기구를 많이 생산하여 고도의 문화를 이루었으며 그것을 원료로 하는 금속 공예품 중 금관의 문화가 왕실, 귀족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으로서 출토되었다. 금관의 문화를 일반민중에 까지 널리 패용된 것이 아니고 왕실, 귀족계급인 상류층에서만 유행한 것으로 이들 계급에 속하는 자들의 분묘에서만 각종의 다양한 귀금속제의 장신구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死者의 장송을 위하여 부장한 습속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주술적인 면이나 사자에 대한 내세관 영혼관도 엿볼수 있다⁵⁷⁾.

신라의 내관 및 관식은 前 논문의 “우리나라조우삼관과 사상적 배경”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외관의 형태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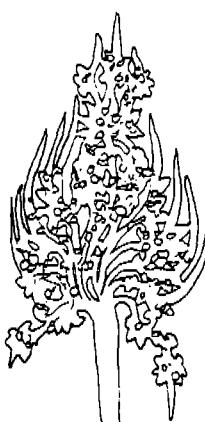
따라서 신라의 금속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3>과 같다.

외관의 양식을 통하여 몇가지 특징적인 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 형태의 특징은 입화식에 있어서 연속山字形 입식과 鹿角形을 이루고 있어 신라의 외관양식은 거의 모두 연속산자형 입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속산자형 입화식을 出字形 입화식으로 보며 이것은 고구려, 백제에서 볼수 없는 山字形 장식을 신라인들이 극도로 便化 樹木形으로 도안화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금속관모의 입화식의 형상은 사상적으로 북방유목문화의 샤머니즘 배경하에서 수목숭배사상 즉 신목사상과 사슴숭배사상 및 조류숭배사상 등으로 설명되어 질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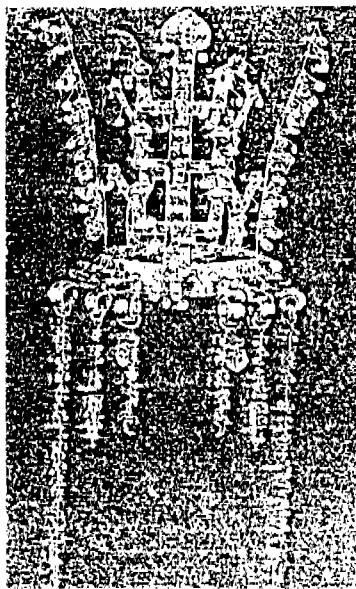
[도 13] 왕비관식



[도 14] 왕관식
무열왕를 출토, 왕, 왕비관식
(左: 왕비관식, 右: 왕공식)
(출처: 고분출토 부장품 연구, 윤세영)

<표 3> 신라의 금속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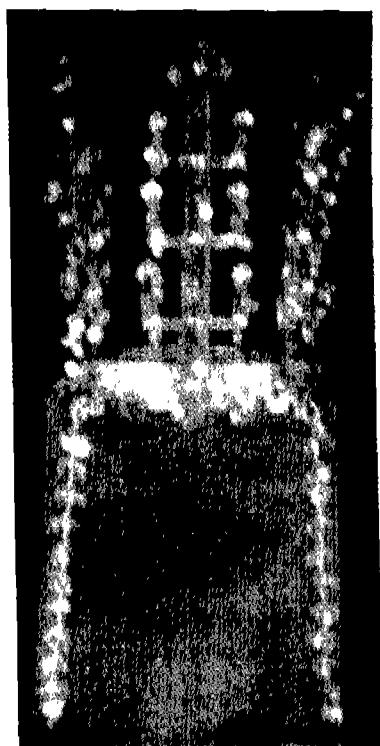
종 류	관 대	입 식
금관총출토 금관 [도 15]	관대의 상하 가장자리는 타출점선 파상문 관대와 입식의 전표면에 원형小步搖 130개, 비취제 曲玉 57개 금사를 끄아서 매담 관대의 좌우 양측에 긴 주식 담.	선단이 象珠形 입식 5개 정면과 전면의 좌우양측에 3개의 입식 : 小枝가 뻗어 3단의 연속 山字形 후면의 좌우양측에 세운 입식2개 : 破狀으로 굴곡 좌우로 뻗은 小枝도 서로 엇갈리게 鹿角形이름 입식 양 가장자리에는 운곽에 따라 打出 二 重點線文
경주황남동 제98 호분복분출토 금관(금관총금과 동 일) [도 16] 고 : 27.5 관대경 : 17 관대폭 3.5	화려하게 장식한 비취제 곡옥 77개 매담 수식이 3조 관 전체에 보요 매담	3단의 연속 산자형 입식 2개 세움 후면에 녹 각형 입식2개 곡옥 매담
금령총출토금관 [도 17]	上下가장자리에 타출이중 점선문 원형소보요 59개 장식	선단이 보주형 입식 5개- 관대의 정면, 전면의 좌우양측에 곧게 세운 3개 입식 —> 좌우소지가 뻗어 4단의 연속 산자형 이름 후면의 좌우양측에 입식 2개, 파상으로 굴곡 좌우로 뻗은 소지도 서로 엇 갈려 녹각형 이름
천마총금관 [도 18] 고 : 32.5 관대경 : 20 관대폭 : 4.5	비취제곡옥 58개로 화려하게 장식 대륜주위 에 상하타출점문	4단위 연속 山字形 입식 3개 녹각형 입식 2 개
서봉총출토금관 [도 19]		입식 5개 관대의 정면 좌우양측에 입식 3개 : 좌우로 소지가 뻗어 3단의 연속산자형 -후면좌우 : 2개 입식-파상으로 굴곡 녹각형 중앙에서 교차하여 아치형 이름 2개 樑帶, 그 교차점 정부 금판을 오려서 봉황형 장식 3개
경주교동폐분 금관 [도 20] 고 : 12.8 관대경 : 14 관대폭 : 3	상하 2단 등간격으로 원형소보요를 금사로 매담 세가지로 갈라지는 입식 중앙부, 선단 보주 형 중심에 심엽형 보요를 매담 다른 부분은 원형 적은 보요장식	보주형입 3개-정면 좌우 양측 하부는 넓고 중간으로부터 상부에 이르러 세가지로 갈라 지고 선단은 보루형 정면의 입식은 좌우양측 입식보다 큼
황남대총금동관	관태주위에 2조의 점선내에 1줄의 점선파상 문 생김	관태위에 수지형 입식 3개 세움 분산지점 굴 곡부 보주형 頂部에 소형경옥제 곡옥, 원형보 요매담
천마총금동관	관태 가장자리 타출점선문 새김	관태위에 3개의 수지형 입식 : 3단의 연속산자형 입식 입식 가장자리들레 : 타출점선문 입식의 분지점, 굴곡부, 원형보 요 매담
호암미술관소장 금동관	관태 줄기 가지 교차부위 가지 상향 부위 산 자 이루는 줄기 중앙부 관태 小 심엽형 보요 담 관태양쪽에 15.6cm수식이 달림	3단의 연속산자형 입식 3개 입식 줄기 가지의 선단 : 보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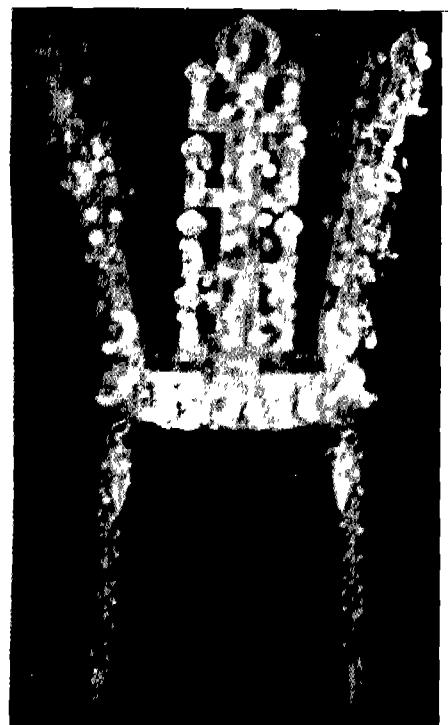
[도 15] 금관총 금관
(출처 : 고분미술, 한국의 美)



[도 17] 금영총 금관
(출처 : 고분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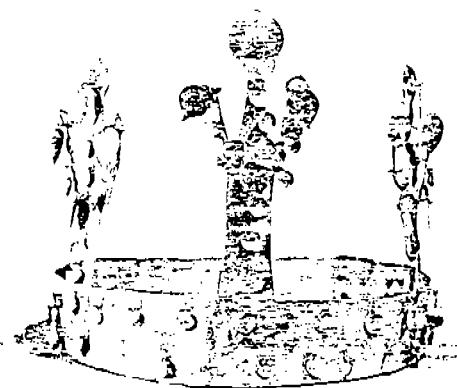
[도 16] 경주 황남동 98호 복분 출토
(출처 : 고분미술)



[도 18] 천마총금관
(출처 : 고분미술)



[도 19] 서봉종 금관
(출처: 고분미술)



[도 20] 경주 교통 폐분 금관
(출처: 고분미술)

조류승배사상은 앞에 “우리나라 조우삼관과 사상적 배경”에서 제시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樹木은 생명을 주는 성수로서 인도의 리그베다에도 나오며 소마, 하오마 라고 불리기도 한다⁵⁸⁾. 樹木形 장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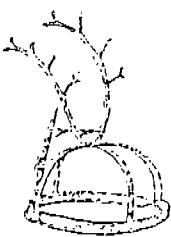
세가지인데 신라의 聖樹 기본이 三이었으며 몽고, 만주 등지의 샤머니즘의 기본 聖樹와 동일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수목형 금관은 사상적으로 시베리아의 ‘生命의 나라, 宇宙의 나무’에서 源流를 구해야 하며 즉 단군 신화에 보이는 신시의 神瓊樹, 馬韓 小國의 別邑의 蘇塗, 신라 신화의 赫居世 탄생성지인 蘿井傍의 樹林과 짐알지 탄생성지인 계림의 수림 등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신목에 세워진 곳이 우주의 중심 거룩한 장소라는 북방계 시베리아 스키토문화에서 발달된 神樹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수목은 풍요의 상징이며 재생의 상징으로 고대인에게 있어 신의 강림처이며 나무를 통하여 인간의 기원이 하늘에 전해질 수도 있고 天神이 인간계로 하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믿었다⁶¹⁾. 따라서 국도로 便化된 樹木形 금관은 시베리아의 수목신앙과 관련지어 관모에 표현되어진 것 같다.

또 樹枝形 입화식의 한가운데와 가지끝마다 모두 寶珠形으로 끝을 맺었는데 이 보주는 靈妙 불가사의한如意寶珠라고 하며 광명을 상징하는 것으로⁶²⁾ 금관 입화식의 끝마다 여의보주같은 형으로 끝맺은 것은 괴짜자의 령이 승천하는데 원하는데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조형을 한 것이다⁶³⁾.

鹿角形 장식은 사슴뿔을 형상화 한 것으로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모장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슴 신앙이 전통신앙으로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슴은 신석기 시대 이후 수렵문화의 주된 대상으로 시베리아 Lena강 유역 Baikal호 지방 Selenga강 유역 Vlan Batot 등 조류신앙이 분포하는 지역의 암각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소재이다⁶⁴⁾. 사슴승배는 북방 유목 민들이 사슴을 세계수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종족의 토템으로 받든 것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사슴 승배사상은 수렵인의 오랜 전통 사상으로 중요한 식량공급원으로 신성한 희생물로 받아들였고 샤만과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사슴승배사상은 수렵인의 오랜전통사상으로 중요한 식량공급원으로 신성한 희생물로 받아 들인다. 샤만에게 있어서 사슴은 그들의 의식용 神帽장식으로 나타내며 鹿角形 입화식은 시베리아 동북방의 巫冠, 예니세이 巫冠[도 21], 에빌족巫冠, 오스터악족 巫冠[도 22], 만주 몽고의 샤만의 모자에서 순록의 뿔, 사슴의 뿔, 금속제 鹿角形 장식이 나타난다고 한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있어서 사슴은 우주사슴이라 부르며 鹿角形 巫冠은 신



[도 21] 오스티악족의 𩔗冠
(출처 : 동북아백락속의 한국신화, 김열규)



[도 22] 예니세이족의 𩔗冠
(출처 : 동북아백락속의 한국신화 김열규)

라의 녹각형 장식 금관의 원형으로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사슴승배신앙은 시베리아 북방 민족과 연결됨을 알 수 있고 특히 Baikal호 북몽고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라의 금속관모의 樹木形, 鹿角形 입화장식은 동물, 식물 양면에 걸친 신라 금속관의 샤머니즘 이념의 상징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步搖(영락)는 앞의 북방 慕容선비의 金制 步搖冠에서 서술한 바에 의하면 새기고 잘라 꽃을 만들어 이마 정식표면에 조각을 빼매어 달았던 것이 우리 삼국시대 금속관 특히 신라의 금속관 표면에 보요장식의 표현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북방 선비족 보요장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曲玉은 벳돼지 어금니에서 유래된 것으로 실제 프랑스 고분에서는 맹수의 어금니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그것을 신체의 일부에 장식하므로서 용감성과 위엄을 과시하였고 잡귀가 불지 않는다는 주술적인 의미로 장식하였다고 한다⁶⁵⁾. 곡옥의 형태가 태아의 형태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보호의식내지는 생산의 의미를 미적 으로 표현한것으로⁶⁶⁾ 이것은 인구번창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곡옥은 미적목적 및 신앙적 의미, 종족보존의 주술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曲玉은 다른 玉류와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 발달 성행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령화된 것은 아니지만 신석기시대부터 나타나며 지역적으로 한반도에서 많이 나타나 이는 玉원석의 산지인 시베리아 만주지방과의 교역이 쉬운 지리적 위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⁶⁷⁾.

곡옥이 한반도내에 들어온 이후 초기 철기시대에서 새로운 곡옥의 형식을 제작하였고 특히 삼국시대 중 신라시대에는 곡옥이 발달하여 형식도 다양해지고 수량도 급증하여 곡옥에 금모를 씌우며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⁶⁸⁾. 금관장식에는 모두 硬玉制曲玉을 달았고 황남대총 북분례에서 보듯이 초록색을 많이 띤 양질의 경옥제품을 달았다⁶⁹⁾. 곡옥을 매달은 수지형입화식은 샤만관의 신목사상으로서 신라문화인 농경사회 의 제사장의 신단에 세운 곡옥을 매달은 신목의 사상과 신앙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시베리아의 [生命의 수] [宇宙의 수] 즉 북방문화요소인 神木신앙의 系统화 할 수 있다.

경옥제 곡옥의 비취 자체에 대한 사상적 계보가 있는 것으로 비취곡옥을 소지하는 자는 고대사회에 있어서 집단내 권위를 가진 자 주술적 능력을 지닌자 영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 등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신라금관에 표현된 곡옥은 신앙적 의미 및 주술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야의 금속관

가야의 관모는 고기록에서는 찾아 볼수 없으므로 고분 출토유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야의 금속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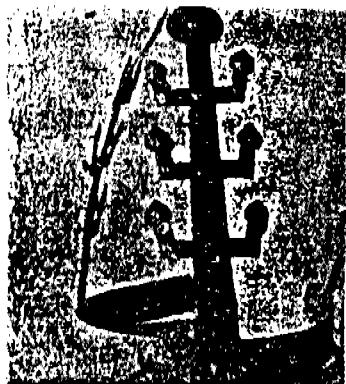
가야의 금속관을 살펴본 결과, 관의 형태는 연속산자형, 조우형 등 신라의 것과 유사한 것도 있으나 좀 더 단순화 된 입식이었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표 4> 가야의 금속관모

종 류	관 대	입 식
대구비산동 37호분 제1 석실출토 [도 23] 금동 관(1) (고 22.6 관대) 경 : 18.1)	관대 양쪽에 수식을 달기 위한 소화이 달림 관대 입식 주변에 타咄점선문 돋힌 다수의 원형소보요 매어됨	선단보주형 입식 3개를 (높이 20.5cm) 정면, 좌우측면에 각각 1개씩 2개의 못으로 고정 3개의 입식 : 좌우로 소지가 뻗어 연속 3단 山字形 이룸
대구비산동 37호분 제1 석실출토 [도 24] 금동 관(2) (고 : 30.6 관대) 경 : 18.1 고27.2)	관대 입식 주변에 타咄점선문, 앞면 전면에 약간 배가 부른 심엽형 소보요가 달림	선단이 보주형 입식 5개를 정면 좌우로 3개(좌우로 소지가 연속 산자형), 후면 좌우측면 2개(파상으로 굴곡, 좌우로 뻗은 소지가 서로 엇갈리게 노 각형) 중앙에서 직교하여 아치형 이룬 樑帶가 있고 교차점 頂部에 반형의 금동좌판을 노하고 3 개의 소지가 달린 원통형 입식 세움 소지끝 에 소보요가 매어 달림
고신라. 서봉총 금관과 동일형식		
양산부부총 금동관 (고 : 38 관대경 : 18.8 산자형입식고 : 33.3 고신라의 금관총, 천마 총 황남동 제98호분북 분출토 금관과 동일	상하주변에 점선으로 鏽齒文을 돋힘 좌우 측 면에 긴 금동제 수식된 관대입식에는 금동선 로 원형소보요 매담	선단이 보주형 입식 5개 정면, 좌우 양쪽3개 : 소지가 뻗어 연속 山 字形 후면 좌우 양쪽 2개 : 파상으로 굴곡, 좌우 로 뻗은 소지가 서로 엇갈리어 노각형 입식주변 : 점선문
성주벽진면 가암동고분 총토금동관 고 : 7.3 관 대경 : 17.6 입식고 : 4.6	후면에서 낫대어 2개의 못으로 연결 표면 : 타咄이중점선문, 상하에 각각 평행선 대 한줄씩 돌리고 내부에 거치문 평행선대 중간 횡 1열의 같은 간격의 원형소 보요 18개를 금동사로 매담	선단이 타원형인 입식 3개 : 정면, 좌우, 측 면 초화형, 좌우로 소지가 하나씩 뻗음 주위 가 장자리에는 윤곽을 따라 이중점선문 돋힘 타원형 정부의 중앙과 입식의 중앙부에 각각 원형 적은 보요 1개씩 베치
고령지산동제 45호 분 제1호 석실금동관 잔결	폭 3.4cm 두께 0.3cm 지위에 금동관 쬐운 관식에 중앙이 용기된 곡면 이룸	선단이 아래로 늘어진 소지 2개 좌우로 뻗은 초화형 입식 1개
전고령부근 고문금관 (이명철수장품) 고 11.5 관대경 20.7 [도 25]	전면 : 타咄점선문 상하에 각각 평행선대 한 줄씩 돌림 내부 : 두줄의 거치문을 서로 교차 능형이름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원형소보요를 한줄씩 금사로 꼬아 매담	초화형 입식 4개 : 좌우 각각 3개씩의 葉形이 뻗었고 선단부, 보주형 가장자리에 2중점열 문, 내부공간은 대각선 같은 점열선문 장식 원형의 작은 보요를 금사로 매담
동래 북천동 11호분 금 동관 [도 26]		좌우 양쪽에 3개의 대생식 수지형 입식 세 움, 청동제 보요가 입식 줄기, 가지, 표면에 따라 부착

볼수 없는 독특한 초화형 입식의 관이 출토되어 가야
의 독자적인 문화양상을 엿볼수 있었다. 초화형 입식
계의 형태는 남러시아 Alenxandropol에서 발견된 은
제 초화형 관식에 관련지워 스키타이 문화에 그 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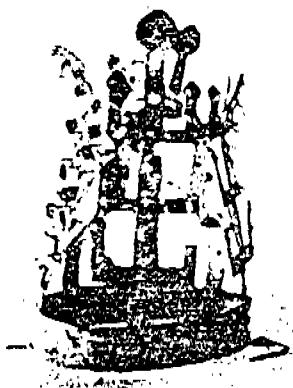
를 두고 한반도에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실존유물을 통한 고대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
야의 금속관 및 주변 국가의 금속관을 살펴 보았다.
이것을 시대별로 그 특징을 정리 분석해 보면<표 5>와



[도 23] 대구 비산동제 37목분 제1석실 출토 금동관
(출처 : 고분출토 부장품연구, 윤세영)



[도 25] 고령부근 고분금관(이병철 소장)
(출처 : 신비의 고대왕국 가야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부산 중앙박물관)



[도 24] 대구비산동 제37호분 제1석실 출토금동관
(출처 : 고분출토 부장품연구, 윤세영)



[도 26] 동래복천동 11호분 금동관
(출처 : 신비의 고대왕국가야특별전)

같다.

위에서 살펴 본 결과는 금속관의 구조 양식의 특징으로 첫째, 입식 장식에 있어서 초화형 입식계, 수목형, 입식계, 화염형 입식계로 나타났다. 초화형 입식계는 주로 가야계의 금속관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백제의 신촌리 9호분 금동관 및 南露 Alex- andropol에서 발견된 은제관식의 양식에 나타나고 연대적으로 보아 스키타이 문화에 그 원류를 구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한반도를 거쳐 가야, 백제에 정착한 것으로 속정한다.

수목형 입식계는 남러시아 체르카스크의 사르마티아 금제관 및 시바르간 출토의 텁리야테페금관 및 백제, 신라, 가야의 금속관 등으로 다수 출토 되었다.

사르마티아 금제관의 出字形, 수목형, 녹형, 입식은

신라, 가야의 출자형 수목형 및 녹각형 입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시베리아 일대 유목민 사이에서 승배된 천지간 지주로서의 나무, 신비적 생명력으로서의 사슴뿔을 便化, 도안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금속관은, 스키타이인 들에 의해 동방으로 전해져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로 전파되었으며, 구체

<표 5> 시대별 구조양식의 특징

시대	발굴지역	금속관	
		금속관名	구조양식의 특징
· 스키타이(BC3C) (BC1C)	· 남러시아의 알렉산드로풀 출토	· 銀制 冠式	
	· 남러시아의 노보체르카스크 호호라치 무덤	· 사르마타이 금제관	수복二枝 와 사슴 3頭 角 입화형장식 대륜하부에 영락장식
· 아프카니스탄 (BC1C~AD1C)	· 시바르간 출토	· 틸리야테페 금관	· 細形 帶輪에 5개에 수지형 입하식 · 대륜 입식에 영락장식
· 흥노(BC3~AD1C)	· 내몽고 자치구 항면기 아노 자등 묘에서 출토.	· 금관	· 반구면체의 頂節 그위에 새장식과 · 늑대가 양을 부는 형상을 한 관대
· 선비(3C末~5C初)		· 금제 보요관	· 관의 각 부위에 채매어답(관의 이마 주위와 관의 끝에 담) · 동물장식에서 보요조각 장식을 단것으로 변함
· 고구려 (AD4~5C)	· 평양부근 출토	· 금동관	· 관대, 입식 투각 조화문 새김
	평양 청암동 출토	금동관	투각 화염문 금동입식 9개 세움
· 백제 (AD6C)	· 나주 심남면 신촌리 제9호 분을관 출토 · 무열왕릉 출토	· 금동관 · 왕관식 왕비관식	· 투각 초화형 입식 · 입식 끝은 보주형 · 원형소보요 매담 · 가운데 줄기 中心으로 화염형 입식으로 뻗어 올라간 형태 전면에 원형 소요보 7개 담
· 신라 (5~6C)	· 금관총 · 경주 황남동 98호 북분 · 금령총 · 천마총 · 서봉총 · 경주 교동폐분	· 금관	· 3, 4단의 연속 수목형 입식 · 후면 양측 노각형입식 2개 세움 · 선단이 보주형 · 보요장식 매담
· 가야(5~6C) (AD4末~6C중엽)	· 대구비 산동 37호분 · 제1석실 출토 · 양산 부분총 · 고령 지산동 제45호분 제1호 · 동래 복천도이 11호분	· 금동관	· 선단 보주형 · 연속 山字形수목형 · 입식, 후면 녹각형 · 원형식 보요 · 초화형 입식

적인 구조와 양식은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수준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화염형 입화식은 고구려 청암동 금동관 및 백제의 무열왕릉 출토왕, 왕비 관식에 살펴 볼 수가 있었다. 이는 인동 당초문 및 화염형 장식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불교 미술의 양식이 첨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표면 장식에 나타난 보요장식은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의 금속관, 선비의 보요 금제관 및 우리 고대 금속관 등에서 나타났으므로 연대적으로 보아 스키타이를 통해 시베리아를 거쳐 중국 북부의 북방 민족 등을 통해 한반도에 전파되어 진 것 같다. 이 또한 금관문화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금속관을 중심으로 금속관의 문화 경로 및 형태를 비교하여 그 계통을 살펴보고 금속관모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수목사상 및 사슴 숭배사상을 통해 살펴 보았다.

고찰한 결과는

첫째, 우리나라 금속문화의 발생은 BC7C~6C로서 청동기 시대의 금속기에서 비롯 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방계 요소가 압도적이며, 철기시대 이후인 BC 1C에 들어와서 금속제 장신구 제작이 본격화 되면서 금관등의 금속 공예품 사용이 많아졌다.

둘째, 금속관 발생 경로는 BC7C~BC4C 걸쳐 금을 좋아하는 남러시아의 기마민족인 스키타이인들에 의해 황금 문화가 동방으로 전해지면서 구조, 양식의 계보는 출토된 유물의 미비로, 구체적인 고찰은 어렵지만 BC 3C~AD 5C 등을 걸쳐 실제 중앙아시아 및 흥노, 거란 등의 시베리아를 거쳐 중국 북부 북방민족인 흥노, 거란, 선비 등을 통해서 금속문화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금속관의 구체적인 구조, 양식의 계보에 있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수준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세째, 고구려, 백제 금속관은 실제로 유존하는 것이 적어 구체적인 구조양식의 계통은 알 수 없지만 고구려관의 불상광배의 화염형 입화식, 백제의 화염형관식, 투각한 초화문, 인동당 초문등은 불교 미술의 토착화에 그 사상적인 배경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실크로

드를 통해 들어온 중국적 요소를 가미한 불교미술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째, 신라의 금속관은 구조양식의 특징을 입화식 및 표면 장식에 두고 있으며 이는 사상적으로 사마니즘 배경하에서 북방 유목민족의 수목 숭배사상 및 사슴 숭배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크로드 스텝루트를 통해 들어온 북방유목 문화의 습속의 영향이 신라 금관문화의 발생 배경을 들 수 있다.

또, 표면 장식으로 나타난 보요는 스키타이인들을 통해 선비의 보요관에서 유래되었고 특히 비치곡옥의 표면은 집단내 권위를 가진자, 주술적 영력 및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 등의 주술적 상징성이 신라 금관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가야의 금속관은 신라의 것과 유사한 연속 산자형 입화식 형태가 있지만 초화형 입식의 관이 출토됨으로서 구조와 양식이 남러시아 알렉산드로폴에서 발견된 은제초화형관식과 관련 지워 스키타이의 관형식에 그 원류를 두고 있으며 이는 백제 초화형 입식계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원통, 예술과 신앙, 한국사론 13, 1984, 국사편찬 위원회편
- 2) 진미희, 권영숙, 우리나라 조우삽관과 사상적 배경, 복식학회지 21號 1993, 11
- 3) 「漢書」地里志, 「三國志」「後漢書」東夷傳
- 4) 전해종, 한국과 중국, 동양사논집, 1982, 지식산사 pp. 39
- 5) 서영주, 삼국과 남북조교섭의 성격, 동양학 pp. 150
- 6) 김용길, 한국고대 해상교통로와 무역활동연구, 경희 대석논, 1988, pp.6
- 7) 김용길, 전계서, pp. 20~21
- 8) 김용길, 전계서, pp. 20~21
- 9) 이병도, 「한국사」고대편, 진단학회, 1959, pp. 534
- 10) 이난영,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단국大 박사학위논문, 1991, pp. 216
- 11) 帝藤忠, 考古字より見た新羅文化の特質, 소화 48 pp. 322
- 12) 이병도, 김재원, 삼국시대文化의 東流, 한국사, 고대편 을유 문화사 pp. 608
- 13) 김정학 고대한일관계,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p. 105

- 14) 馬澤和後, 閔丙勳(譯), 동서문화의 교류, 민족문화, 1991, pp. 14.
- 15) 桶口隆康, シルカラードを掘る, 대관서적, pp. 8
- 16) 무하마드간수, 신라서역교류사, 단국대출판국, 1992, pp. 453
- 17)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1973, 일지사, pp. 79
- 18) 이은창, 신라금속공예의 원류적인 중앙아세아 고대文化, 한국학보26, 일지사, pp. 155
- 19) 임효재, 한국고대문화의 흐름, 1992, 침문당, pp. 207
- 20) 「隋書」卷15, 志10 音樂下
- 21) 「三國史記」고구려본기 영양왕 18.
- 22) 「三國史記」新羅本記, 卷5, 선덕왕.
- 23) 이난영, 한국고대 금속공예 연구, 단국大 박사학위논문, pp. 91, pp. 216
- 24) 무하마드 간수, 전계서, 1992, p. 455
- 25) 桶口隆康, 전계서, pp. 9
- 26) L.I ろりバウム, 加藤力祚, 古代サマルカントの歴史, 문화출판국, 1980, pp. 11~113
- 27) L.I ろりバウム, 加藤力祚, 전계서, p. 112
- 28) 新羅文化宣揚會, 신라와 주변제국의 문화교류, 1991, pp. 81
- 29) 김용문, 중앙아시아의 수발양식과 頭衣, 한국복식, 12號, 1994, pp. 87
- 30) 김원룡, 한국문화의기원, 탐구당, 1976, pp. 20
- 31) 김원룡, 전계서.
- 32) 馬澤和後, 閔丙墳(譯), 전계서, pp. 89
- 33) 馬澤和後, 閔丙墳(譯), 전계서, pp. 88
- 34) 김정학, 문헌 및 고고학적 고찰, 한국사론 14,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 8
- 35) 김정학, 전계서 pp. 30
- 36) 이형구, 한국민족문화의 시베리아 기원설에 대한 재고 - 한국고대문화의 기원에 대한 서설, pp. 19.
- 37) 西谷正, 朝鮮における金屬器の기원문제, 史林, 1967, pp. 104
- 38) 西谷正, 전계서, pp. 104
- 39) 이건무, 韓國古代遺物을 통해본 북방문화요소, 스키 타이팅금, 국립중앙박물관, pp. 302
- 40) 이종선, 오로도스 후기 금속문화와 한국의 철기문화, pp. 17
- 41) 임효재, 1992, pp. 192
- 42) 이인숙, 신라와 가야의 장신구, 한국고대사 논총 3집,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pp. 73
- 43) 「三國志」부여전
- 44) 「魏書」東夷傳 고구려조
- 45) 이현구, 한국고대문화의 기원, 까치출판, pp. 229
- 46) 이형구, 전계서, pp. 23
- 47) 桶口隆康, 전계서 pp. 9
- 48) 桶口隆康, 전계서 pp. 72
- 49) 임효재, 1992, 전계서 pp. 214
- 50) 이은창, 신라금속공예의 원류적인 중앙아세아고대문화
- 51) 김원룡, 신라금관의계통 불교사학논집, pp. 292
- 52) 김원룡, 한국미술사연구, 일지사, pp. 627
- 53) 徐秉理, 契丹冠式此方民族의金冠傳統, pp. 144
- 54) 徐秉理, 전서, pp. 144
孔國平, 試談鮮卑族의步援冠節 pp. 121~pp. 122
- 55) 이난영, 전서 1991, pp. 222
- 56) 황호근, 한국장신구미술연구, 일지사 1976, pp. 95
- 57) 윤세영, 고분출토부장품연구, 고려大민족문화연구소, 1988, pp. 56
- 58) 김원룡, 신라금관의 계통, 불교사학논집, pp. 292
- 59) 김열규, 동북아 맥락속의 한국신화, 한국정신문화원 보고논총 81-1, pp. 307
- 60) 이은창, 신라고대장신구의 연구-고대장신구의기원, 계보와 그사상을 중심으로-고문화 39집 1991, pp. 69
- 61) 김택규, 신라상대의 토착신앙과 종교습합, 신라종교의 신연구, 1991, pp. 200
- 62) 짜은주, 신라금속관모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pp. 44
- 63) 上野理恵子, 貢珠形裝節の起源とその思想, 미술사연구 24책 pp. 76~79
- 64) 홍호근, 전계서, 1976, pp. 101
- 65) 김양옥, 한반도 청동기시대 문양의 연구, pp. 27
- 66) 황호근 전계서, 1976, pp. 27
- 67) 이혜영, 고신라 고분출토 장신구 中 玉에 관한연구, 조선大 석사학위논문, 1986, pp. 7
- 68) 김원룡, 생산경제, 한국사 I, 1973, pp. 99
- 69) 최승현, 고신라 적석목곽분 연구(下), 묘형과 그 성격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3, 1981 최은주, 한국 曲玉의 연구, 숭전大석사학위논문, 1986, pp. 76